



▲ <한가정병원> Fullerton 지점은 Fullerton 아리랑마켓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원장은 <한가정병원>을 찾는 한인 시니어들이 자신을 의사라는 직업인 이전에 자연인으로 봐 주기를 원한다. 한국 문화에 녹아 있는 의사에 대한 존대 대신 마음을 열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 주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진료 행위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가정병원>의 양윤희 실장은 환자를 꼼꼼하게 챙기는 한 원장의 업무 스타일은 때때로 스태프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양 실장은 “한번은 원장님이 환자에 관해 빼곡하게 기록된 문서를 들고 와서 지금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다면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했지만 환자가 진료실을 찾아오기 전에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해서 상태를 묻고 조언을 해 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요.” 라면서 환자를 대하는 한 원장의 태도에 놀라워했다.

이런 한 원장의 철학은 병원 운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가정병원>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상담하고 교육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는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이나 소외감 등을 느끼지 않고 정신적 안정을 찾고 유지하게 한다.

또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영어에 서툰다는 이유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내원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돕는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 찾기를 꺼려하는 무보험 시니어들을 위해서 부담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한인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 위해 역할 다 할 것**  
양 실장은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적인 것보다 한국적인 것이 더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시니어들이 불편한 노후를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우리 <한가정병원>은 한인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독감 예방 접종 및 협진**

<한가정병원>에서는 9월부터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 시간은 월요일 ~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예약 없이 방문해도 접종할 수 있다.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차량 운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도 한다. 독감 백신은 고용량 백신이어서 항체 지속력이 매우 높다.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한가정병원>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과 협진을 제공한다.

Norwalk <한가정병원>은 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Fullerton <한가정병원>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가든그로브 발병원’의 신 마리발, 발목전문의를 내원해 환자 진료를 돕는다.

또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JK Pro-rehab’ 와 협진한다.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김도준 한의사(한의학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DK한의원’ 과 협진한다.

<한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리퍼해 준다. 특히 환자가 ‘라팔마병원’에 입원하면 한

원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담당 주치의가 돼 환자를 돌볼 수도 있다. 너싱홈에 입원하는 등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한 원장이 직접 방문해 진료해 준다. 또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등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를 돕는다.

■ **한인 시니어 행복 위한 비전**

<한가정병원>은 한인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향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너싱홈, 실버타운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한국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한인 시니어들이 이질적인 미국 문화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더 인간적인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다.

한 원장은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심신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집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인간 존엄의 노화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 치료도 결국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라며 “환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에게 건강을 맡기기에 앞서 사람으로서의 의사에게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의사의 인간적 역할도 많아지고, 환자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인간적 존엄도 지켜질 것” 라고 말했다.

◆ 문의

- ▶ Norwalk 지점: (562) 318-0810  
11637 The Plaza #45, Norwalk, CA 90650
- ▶ Fullerton 지점: (714) 879-9988  
1706 W. Orangethorpe Ave. #D  
Fullerton, CA 92833